

독자 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또 현대불교에 대한 의견·제안·제보도 받습니다.

# 독자

보낼 곳: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부디피어 인터넷: gobacou@buddhapia.co.kr  
 전리안: aem 하이텔 34713 나무누리 sutta

# 만화

# 법구경

## \* 이착의 장 \*

잡초는 논밭을 망치게 하고  
 교육은 사람을 망치게 한다



이향원

오시라 한 건이 차를 쳐분하고 새 차를 구입했으면하고  
 아니!  
 교통사고로 훼손되었는데...?  
 세상에 그런 더러운 놀이 있을 줄은 몰랐어  
 아! 글세 공부 잘하는 아이인데 부모는 어찌했는지 혼자 고생을 한다고  
 도와준다면 장래가 밝은 아이라고 누가 그러기에 만나왔더니  
 꼭 법관으로 성공해서 은혜도 꼭 갖고 남보란듯이 살겠습니다  
 법관!  
 그래 내가 아깝없이 지원해 줄테니 공부에 전념해 꼭 판검사 되어라  
 에 사장님!  
 내가하는게 유용업이라는게 어찌했는지 혼자 고생을 한다고  
 그래서 내 주위에도 판검사 한 사람쯤 있다면 하는 생각에  
 잡초는 논밭을 망치게 하고 교육은 사람들을 망치게 한다  
 교육이 없는 이에게 드리는 보시는 큰 값을 가져오리라  
 고액과의비 까지 주저없이 했는데 이놈이 돈을 어디 쓰는지  
 학교성적은 엉망이고 애가 이상한 꼴로 변해 버렸어  
 그래서 더이상 돈을 대주지 않았더니 행패를 부리고 차를 이꼴로 해놨지 뭐냐  
 어찌나 분통이 터지던지 당장 고소해서  
 감옥에 쳐넣어 버렸지  
 참! 김순삼씨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를 여럿 돕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 그런 못된 놈은 없던가요?  
 생각지도 못할 일이지  
 제가 아는 아이들은 대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꼭 성공해서 잡초는 논밭을 망치게 하고 성님은 사람들을 망치게 한다  
 성님이 없는 이에게 드리는 보시는 큰 값을 가져오리라  
 사회인으로 장성해서도 그렇게 실행하고 행복 해 하고있지요  
 에잉! 내가 눈이 빠졌지 쓰레기 잡초같은 놈을...  
 저... 좀 의란된 말씀인것 같습 니다만...  
 박사장님께서 그 아이를 잡초 쓰레기처럼 만드 신건 아니신지?  
 잡초는 논밭을 망치게 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망치게 한다  
 어리석음이 없는 이에게 드리는 보시는 큰 값을 가져오리라  
 사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판검사 만들어 옆에 둘 생각 때문에  
 갑자기 문에 넘치는 돈을 준것으로 아이가 변해버린지도 모를 일 아닙니까?  
 그런 욕심이 앞서지 않았다면 문에 넘는 지원도 안하셨을것 같은데요  
 잡초는 논밭을 망치게 하고 욕망은 사람들을 망치게 한다  
 욕망이 없는 이에게 드리는 보시는 큰 값을 가져오리라

## 민족성지 백두산에 쓰레기 버리는 관광객

지난해에 이어 문화유산담사의 일환으로 백두산을 찾았다. 이번 백두산 담사는 천문봉에서 달문을 거쳐 천지와 비룡폭포에 이르는 코스였다. 그중 천지에 갔을때의 느낌이 대개 몇가지 적고자 한다. 천지에 다달았을때 그곳에는 마구버린 쓰레기로 인해 악취가 진동했다. 소주병, 음료수캔, 담배꽂초, 음식찌꺼기, 필름통..... 이것들은 대부분 우리상표가 붙은 쓰레기들이어서 또한번 놀랐다.

이같은 쓰레기는 천지뿐 아니라 고래동 권원의 야생화초원, 천문봉 정상에도 마찬가지로 있다. 단원들이 쓰레기를 줍기는 했지만 턱도 없었다. 민족의 성지를 관광지로만 여기는 한국인들의 물리적성에 대해 분노를 느꼈다.

또한 쓰레기만이 아니라 이곳을 찾는 한국관광객들의 태도는 정말 가관이었다. 깡터같은 반바지에 등과 가슴을 다 드러낸 험렁한 T셔츠를 걸치고 생물을 질질끌며 마치 해수욕하러 가는듯 한 차림들이었다. 게다가 해온 씩씩이로 민족간의 빈부 위화감마저 조성하고 다니는 그 자체가 이미 인간 쓰레기 모상이었다.

최근 한 이벤트회사에서 백두산에 산악자전거 코스를 개발한다고 한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다. 돈버는 일이라면 어디라도 개발하고 레저라면 어디라도 찾아가겠다는 발상, 이것이 문제다.

백두산 천지는 우리 민족의 영지이다. 북방의 여러 민족들에게도 영산이요, 성지다. 우리 관광객들의 그 무례함과 방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는 관광객들의 방종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그에 앞서 국민들의 관광의식부터 고쳐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가을에 군법당 창공 완공자금 모자라요"

법당이 없어 일요일회를 보기위해 트럭에 올라타때, 수요법회를 열기위해 식당 회의실등을 전전할때 법당미련은 더욱더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법당 불사'라는 서원을 세워 본격적인 불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원력을 세운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인근사찰에 수신품의 편지를 부쳐보았고, 조계종 총무원에 서류도 제출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연이 닿지 않은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 다.

하지만 부처님은 저희들의 원력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문이나 잡지를 보셨다면서 보시를 해주시는 분도 계셨고 합내라는 편지를 보낸분도 있었 습니다. 마치 부처님께서 보고계신것처럼 너무나 힘들었을때 힘이 되주셨습 니다. 이러한 불자들의 도움으로 가을

## 이면 법당 창공에 들어갑니다.

창공을 할 수 있는 불사금은 모았으나 완공할 만한 자금은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제 제가 전역을 하게되어 후임군 총병에게 모든것을 일임하게 되었습니다. 후임군총병이 법당을 완공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경호 병장·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사시항 100-36호)

## 파라미타 여름캠프

### 현장 준비·진행 미숙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무주에서 개최한 파라미타 연합캠프 참가 이후 몇가지 지적하고 한다.

전국규모의 행사로 2천여명이란 많은 학생들이 모인것은 뜻깊은 일이지만 진행상의 많은 미흡으로 인해 캠프 참가자들을 지루하고 힘들었다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인연맺기, 천수천안 프로그램은 내용 자체가 진행지도자가 수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에어로빅과 참선으로 변경되었고 일부프로그램들은 진행지도자가 없었다는 이유로 인솔지도자들이 진행을 감수해야만 했다.

한마디로 진행지도자들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무더운 여름, 어린 청소년들은 프로그램이 진행될때마다 짜증을 냈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속출했다. 그러나 어느누구도(진행지도자조차)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채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던 것에 대해 주최측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아영지의 장소 문제, 화장실 샤워실 전기시설 등은 학생들의 수를 전혀 고려치 않은 처사라고 생각된다.

많은 인원을 참여시켜 외부적으로 대규모 행사를 바라기 보다는 작은 인원이라고 말한 프로그램으로 즐겁고 유익한 캠프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은 행사였다.

앞으로 교계에는 이와같은 행사가 계속될 것이다. 관계자들은 행사에 앞서 철저한 현장담사와 진행지도자들의 교육이 선행될때 청소년의 포교는 진일보한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 가야산골프장공원에 가야산골프장 건설을 저지해야 한다는 기사를 보고

이에 동참한다. 가야산 골프장 건설을 놓고 우리들은 왜 반대해야만 할까. 우리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과 가야

### 가야산 골프장 반대

## 대장경 보존성지에 위락시설이러니

산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대할 것이다.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정하고 관리하는 국립공원에 산림과 지형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골프장을 건설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국립공원에에서는 조그만 건물도 제

로 지을 수 없고 취사행위도 용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다. 그런데 무려 48만여평이나 되는 땅을 몇몇 사람들에 의해, 레저 스포츠장인 골프장을 건설한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소수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처사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 가야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해인사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팔만대장경이 소장되어있다. 이와 같은 국립공원인 가야산을 파헤쳐 소수의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개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박광석·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 현대불교를 읽고

일본에 의해 국토는 물론 경제, 교육문화를 강탈당했던 일제치하 36년의 잔재는 광복을 맞은지 반세기가 지난 오늘에도 여전하다. 그 잔재를 제대로 인식하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반

### 사찰조경 일제잔재

## 불교의식·생활속 잔재도 바로 잡아야

성을 하게 된다. 그런면에서 불매 지난 89호 '사찰조경에 식민잔재 고대'로 라는 기사는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일제의 잔재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좋은 기사라는 생각이 든다. 법당 주변에 심어진 나무를 근사하다고만 생각해 온 나로서는 그것이

일제의 잔재라는 사실에 자못 놀라기까지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식민잔재속에서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로 살고 있었는가? 누구나 말로는 일제 36년을 제대로 극복하고 참다운 광복을 해야한다고 강조하지만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 노력들은 너무 부족했다는 반성

이 된다. 이런 기사가 광복특집으로만 다루어 질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고쳐나 생활속에 남아 있는 잔재를 찾아 바로 잡아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김광희·부산 수영구 남천동)

## 전통문화 배우기 시간 청소년 행사마다 활용

우리는 선우가 지난 1~4일까지 실시한 국악캠프의 운영부원으로 참가한 소감을 몇가지 적고자 한다. 운영부원으로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없었지만 열의를 가지고 지

도해 주시는 강사들과 열심히 교육에 임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부끄러운 자부심을 느꼈다. 어색함과 지루함으로 가득했던 학생들의 표정이 시간이 지날수록 강사와 청소년들이 하나로 조화해 흥겨워하는 모습은 아름답기만 했다.

3박4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전문적이고 심오한 우리의 가락을 전수한다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서양의 문화에 물 들어가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부여하고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 깊었다.

특히 '우리들의 시간'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의 것에 쉽게 친해져 원활히 공연을 펼치는 모습을 보면서 청소년들에게도 우리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

우리의 국악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정서적인 면을 표현할때 그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캠프가 활성화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한다.

(윤영길·항공대학 4년)

## 군인들자를 육성하자

저희 군불교진흥회는 이십여년전 불교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군내 포교를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안녕을 위해 모든 현실적 욕망을 뒤로 하고 군문에

불자들이도 이 대작불사에 동참하시어 더 큰 원력으로 불교정도를 이루시길 부처님전에 기원드립니다. 군불교 진흥회 회장 박성길 합장

## 군법당 건립등 호국불사에 동참을

와 있는 우리의 청년들은 호국불교의 맥을 잇고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보살입니다. 군불교진흥회는 군포교에 전력하고 있는 군법사들과 군법당 건립등 각종 불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군불교진흥회 (02)749-5136 우)140-600 용인시신정 직영 한 보살입니다. 우체국서신함 83호 은행지포 6809804 우체국 010025-0102390(군불교진흥회)

**칼라판 사진으로 보는 법보시용 경전**

쉽고 재미있는 생활불교 1      쉽고 재미있는 생활불교 2      쉽고 재미있는 생활불교 3

500대원불석가모니불

지장경

장수멸죄경

이런 중생이 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오욕죄를 범하였어도, 이 경을 자신이 쓰고, 읽고, 외우고, 지니거나, 남을 시켜 쓰게만 하여도, 그 죄업에서 벗어나 천상에 태어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살아서 선업을 맺지 못하고 악업만 잔뜩 지었다 해도, 병을 마친 뒤에 가족들이 그를 위하여 이 경으로 복을 받으면, 업장이 소멸되어 죽은 뒤에 바로 인간세상이나 천상에 태어나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학임 없음/신국판 칼라화보/값 각권4500원

**운주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전화:720-9372~3 팩스:723-0646

**법보시용으로 활용합니다**

**김재웅 법사와 함께하는 금강경독송회! 이들의 현대적 수행담**

**분별은 바치고 마음은 밝은 곳으로**

1부 : 금강경 독송회 평신도님들의 신앙체험담  
 생활속에서 바치는 법을 실행하며 밝은 생활을 누리시는 따스한 이야기가 봄 햇살처럼 가득합니다.

2부 : 오직 수행에만 전념하고 있는 수자님들의 이야기  
 지극한 부처님 시봉과 불같은 정진에 몰두하고 있는 수자님들의 이야기는 푸른 공기처럼 우리의 가슴을 적셔줍니다.

**금강경독송회 엮음**

김재웅 법사의 세번째 책

**그 마음을 바쳐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지혜를 가로막는 일이니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버리라고 하면 아까울 것이니 그 마음을 바쳐라. 바치는 마음을 연습해서 남을 위해 살고 부처님 시봉하는 삶을 산다면 그 마음이 우주에 가득차서 결국 부처님이 되지 않겠는가. 거기 어디에 내가 있고 또 내가 있는가? 너, 나 없는 그냥 한마음 아닌가.

신국판 267쪽/ 값 7,500원

〈백 선생님 법문에〉

도서출판 용화/ 경북 영일군 흥해읍 성곡2동 1269/전화 (0562)61-2231/ 서울 연락처(02)742-0172  
 판매보급처/ 불교서적출판 운주사/ 전화 (02) 720-9372,9373/ 팩스 (02) 723-0646  
 금강경독송회/ 서울 혜화법당(02)742-0172/ 포항 우현동 법당 (0562)47-0323/ 포항 금강정사(0562)61-2231